

한덕수는 왜 경찰의 경호 특혜를 받고 있나

경찰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후보의 자택에만 24시간 경비 병력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5월 1일 국무총리직 사임을 발표한 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나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의 승인도 없이 단독으로 경비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한 후보가 현직 총리 신분이 아닌 단순한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공식 경비 원칙을 무시하고, 오직 윤석열의 정치적 후계자에게만 국가 치안 자원을 과잉 집중시켰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경찰의 판단을 내린 이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정상적 속도로 승진하여 특혜를 누린 ‘윤심 최측근 경찰’으로 불리며 윤석열 내란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왜 후보자의 신변경호를 넘어 사저경비까지 서울경찰청이 즉각 움직였습니까?

왜 이 시설경비는 유력 정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의 아바타 한 사람에게만 제공됐습니까?

이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테러위협에 대한 중요인사 보호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경비 특혜로서, 서울경찰이라는 국가 치안 권력이 내란 기획 세력과 함께 움직였다는 실증적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덕수 후보에게도 묻습니다. 혹시 아직도 국무총리로서 누리던 특권을 원하십니까? 후보가 출타한 자택에 주로 남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비의 실질 대상이 혹시 자택에 머무는 부인 최아영 씨는 아닙니까?

최 씨는 정·관계에서 김건희 씨와 깊은 친분과 연계 의혹이 제기되어온 인물입니다. 윤석열-김건희, 한덕수-최아영 부부가 권력 사적 네트워크로 얹힌 동맹관

계라는 시선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번 경비 배치는, 결국 윤심이 지시하고, 윤심의 경찰이 움직이며, 실질적 수혜는 최측근 부인이 받았다는 방증 아닙니까?

윤석열 체제가 무너지자, 경찰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후보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국가입니까, 아니면 사조직입니까?

국민은 압니다. 경찰이 지킨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권력의 잔재였습니다.

2025년 5월 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 박관천